



2022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인도남아시아 권역

쏟아지는 별을 이불 삼아, 인도 자이살메르

류민주

2010년 1월, 3개월 간 텔리에서 머무를 기회가 있었고, 인도라는 생경한 나라와 문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꼭 10년 만이었다. 인도를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연말까지 휴가를 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겨 다시 인도를 찾았다. 혼자 떠났던 1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여행을 같이 할 친구가 있고, 열흘 정도의 짧은 휴가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텔리를 중심으로 아그라, 자이푸르, 자이살메르 등 이른바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지역을 택시 투어로, 미리 예매한 항공편, 철도편 등을 이용해 여행할 계획을 세웠다.

늦은 밤 도착한 뉴델리공항에서 나오니 매캐한 공기가 코를 스치고 ‘나 여기 있어요’라며 외쳐대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아, 내가 다시 인도엘 왔구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택시 드라이버는 한국의 인도여행자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한 인물이었다. 푸근하고도 순진해 보이는 인상이 특징이었던 그는 아그라와 자이푸르까지 2박 3일 간의 여행일정을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리고는 택시 투어의 마지막 날, 자이살메르로 향하기 위해 기차역까지 내려주고는 연신 조

심하라고 걱정해주며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일러주기까지 했다.

인도의 기차는 예약 시스템이 비교적 잘 되어 있고, 예약 취소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기 예약번호를 부여한다. 일행과 나는 여행 한달 전 이미 AC 1A 등급 좌석을 예약했고, 대기 4, 5번을 부여 받았지만, 워낙 인도의 기차가 연착도 잦고 예약 취소도 있는 편이라 대기 예약이어도 무난히 기차를 탈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즌이어서 그런지 예약 취소는 내 생각만큼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날 따라 연착 없이 거의 제시간에 기차가 운행되고 있어 결국 출발할 때는 겨우겨우 Sleeper 등급의 좌석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여성 여행자 둘이서, 별도의 방이 아닌 오픈된 형태의 침대칸에 앉아 야간 시간 동안 약 17시간 정도 목적지까지 가기로 결코 편한 여정은 아니었다. 이곳저곳에서 끔찍이며 바라보는 호기심 열렬한 눈길 속에서 거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상태로 자이살메르에 도착했다.

자이살메르는 인도 라자스탄 주의 도시로 ‘골드시티(Gold City)’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라자스탄 주의 조드푸르는 블루시티, 우다이푸르는 화이트

시티, 자이푸르는 핑크시티라고 불리는데, 각 도시에 도착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자이살메르는 그야말로 누런 황금빛의 도시였다. 황토빛의 건물, 누런 모래흙길, 이따금씩 부는 모래바람까지. 다른 색상을 허용하지 않는 듯한 그야말로 골드시티였다.

기차 안의 상인에게서 산 마살라 차이 한 잔으로 피로를 조금 날리고 우리는 곧장 미리 예약해 둔 사막투어를 이용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 사장과 접선했다. 아직 서툰이 되지 않은 사장은 10대 때부터 이 곳에서 여행사 일을 도와가며 일을 배웠다고 했다. 정확한 발음과 단어는 아니지만 꽤 유창하게 구사하던 영어는 일을 하며 배운 것이라고 했다. 자이살메르 성 근처 지역의 아이들은 대부분 골드시티를 찾아오는 여행객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 또는 식당에서 일을 배우며 자라는 것 같았다.

자이살메르가 어떤 곳인지 자랑스레 소개하던 사장의 차를 타고 도착한 사막은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폐허가 된 집들이 있지만 또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도 있었다. 이미 포장도로가 깔린 곳이 많았고, 군데군데 나무도 자라고 있어서 끝도 없이 모래가 펼쳐진 모습을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긴 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아 도착한 것이겠지.

자이살메르의 사막은 이미 여러 베이스캠프와 식당이 있어서 많은 여행자가 와서 편하게 사막에서

머물다 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몽골텐트들이 원을 둘러 쪽 설치되어 있고 그중 하나에 배정받아 들어가니 나뭇 침대, 세면대,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어 오기 전까지는 모래 위 작은 텐트에서 잘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훨씬 호사스럽다고 느껴졌다.

텐트에 짐을 풀고 나와 또 10분 정도 이동해서 오후 4시가 넘는 시간에 도착하니 낙타 두 마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한 마음(!)을 안고 낙타 등에 올라 사막을 거닐어본다. 5시엔 낙타가 퇴근해야 하기에 10분 정도 잠깐 탄 뒤에는 보내주었고, 그리고는 고운 모래바닥을 느끼며 사막을 둘러보았다. 군데군데 덩불이 자라고 있고, 나무도 몇 그루 보인다. 오후 5시쯤이 되니 해가 질 시간이 다가오는지 사막 지평선에 태양이 가까이 내려앉았고 한낮에 이글거리는 빛은 살짝 부드러워져 사막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골드시티라고 불리는 이곳 자이살메르를 찾는 여행객들의 편의에 맞게 차가 오갈 수 있도록 도로도 깔려 있고, 곳곳에 게스트하우스와 베이스캠프, 식당 등이 차려져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수백년 전 이 척박한 사막에서 그들만의 도시를 이루고 살던 이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를 상상해보기도 했다.

정경. 인도의 개들은 유난히 다리가 긴 것 같은데 낮에는 길 어딘가에 쓰러져 낮잠을 자다 밤이 되면 때를 지어 우루루 다닌다. 주로 들개들이라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그들이 밤이 되어 짙으면 꽤 위협적이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둑해지고 있다. 저 멀리서 사장이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손짓을 한다. 베이스캠프로 돌아가니 중앙에 바비큐가 차려져 있고, 라자스탄 전통 의상을 차려 입은 사람들이 공연을 선보인다. 우리 말고는 대부분이 인도인들이었는데 공연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다. 적당히 공연과 음식을 즐기고 텐트로 돌아왔다. 해가 지니 급속도로 추워지는 사막의 밤을 생각지 못했다. 속을 덥혀줄 술 한잔이 생각나는 때였다.

사장을 찾아 가 맥주를 살 수 있는 곳을 물었다. 그랬더니 두 눈을 반짝이며 말한다. ‘너희 진짜 사막에서 잘래?’

구미가 확 당기는 제안이었다. 사막 투어를 왔지만 정작 호사스런 텐트에서 하루를 보내는 건 인도여행(?) 다운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던 차였다.

우리는 바로 오케이를 외치고 추운 밤을 지낼 수 있게 좀 더 무장을 했고, 침낭도 챙겼다. 사장은 근처에 쉬고 있던 직원을 불러 술과 음식을 준비해서 다시 사막 한가운데로 이동했다. 꽤 높은 도수의 증류주와 닭을 향신료에 버무려 볶은 요리는 차갑게 식은 사막의 밤을 버티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사막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뒹굴고 놀았다. 경사가 있는 모래언덕에서 썰매를 타기도 하고 사막을 방방 뛰어다니기도 했다. 우리가 잘 수 있게 모닥불을 피워주고 자리를 만들어 준 사장과 직원에게 한국에서 가져 온 핫팩을 좀 나눠주었더니 너무 신기해하기도 했다.

침낭에 쏙 들어가 본 하늘에는 그간 본 적이 없던 수많은 별들이 떠있었다. 눈 앞에 금방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별들. 자이살메르 사막에서의 차가운 밤은 따뜻한 모닥불 앞에 앉아 마셨던 술 한잔과 한 팔 가득 넘치게 안을 수 있을 것 같은 별들로 기억되고 있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